

연중 제 22 주일:

2017 년 9 월 3 일 (가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8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416)	봉헌 (211)	성체 (154), 묵상곡 (25)	파견 (238)
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장 글라라(구역장), 유 마리아,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이 요한,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2 구역: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헬레나,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이 올리안나, 김클라라,홍마르코, 홍야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릿다, 김 유수티노, 김 요아킴, 고 안나 " 나의 사목비결은 침대 맞은 편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성 요한 23 세 교황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3/1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박 다니엘
9/10/17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9/17/17	유 요한	이 바오로	박 다니엘
9/24/1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08/20/17	\$235		\$150

성당 청소 봉사자 스케줄 (봉사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이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 오후: 3시)

7/8/17	오 베드로/ 오 루시아	8/12/17	이 요한/ 전 제노베파
7/15/17	김 마르타/ 김 클라라	8/19/17	김 헬레나/박 세라피나
7/22/17	장 클라라/ 이 그레이스	8/26/17	김 마론/ 허 루카
7/29/17	손 아놀드/ 손 쟈마	9/2/17	박 니콜라스/박 마가렛
8/5/17	이 클라라/이 올리안나	9/9/17	이 마틸다/ 최 요안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주교님 베이커스필드 방문

오늘은 주교님이 우리 성당을 방문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 공동체 미사를 집전 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는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시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는 9/3/17(오늘), 오후 7시에 사제관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난 8월 3일 성체조배에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성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9월 7일 입니다.

오늘 미사후 친교실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달(8월) 우리와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황인범 가롤로 형제님 (626-200-9390)

자: 황태양 스테파노

녀: 황지호 스텔라

말씀의 이삭

예고된 배신자

김세원 율리아나 / 방송인

가룟 유다의 얘기가 아납니다. 예고된 배신자가 나오게 된 전말은 이렇습니다. 1960년대 저는 남녀공학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때 여학생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롭기도 했습니다. 해서, 졸업한 지 한참 후 여학생들만의 모임인 여성동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매달 월례회와 1년에 한 번 총회를 열어 연사의 강의도 듣고 우정도 다지고, 많지는 않지만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총회 때 이야기입니다. 연사로 어느 잘나가는 증권회사 사장님을 모셨는데 그분의 첫마디는 여성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이 특히, 아들에게 올인 해놓고 나중에 잔뜩 기대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 아들은 '예고된 배신자'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공감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들었던 '예고된 배신자'들의 실례가 떠올랐습니다. 현재 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올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어 온 가족이 행복해 하고 있는 제 후배 이야기입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 딸 아이가 좋아하는 영덕 대게 다섯 마리를 거금을 주고 사서 잘 손질해 냉장고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엌에 나와 상자를 열어보니, 어라? 한마리가 없더랍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네 마리. 마침 아들 녀석이 가방을 들고나오길래, "애야,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어젯밤 엄마가 게 다섯 마리를 여기 넣는 거 너도 봤지? 한 마리가 없어졌어. 영덕에 간 것도 아닐 테고..." 아들 녀석은 약간 멧쩍어하며 "아 그

거... 내 가방 속에 넣었어." "왜?" "진이 있잖아~" "진이? 요새 만난다는 아이? 근데?" "진이 갖다 주려고." "이놈아. 그게 얼마짜인데?" "에이~ 진이 자취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그랬잖아, 좋은 일해야 천당에 간다고." "이 녀석아, 너 너의 엄마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면서." 물론 이 말은 속으로만 했다더군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후배의 얼굴엔 서운함이 가을바람처럼 지나가더군요. 또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어떤 친구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은 했지만 혼자 움직이기가 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이 자기 집에 와 계시라 해서 반가운 마음에 며칠 입을 옷을 챙겨 갔더니 며느리와 손주는 친정으로 가고 아들이 밥을 해 주더랍니다. 며느리 변명해주는 아들이 바보 같고 불쌍해서 하룻밤만 자고 와서는 그만 화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길 듣고 저도 화가 모락모락 올라오려 했지만 이렇게 던졌습니다. "애, 너 좋았겠다. 아들하고 둘이서 옛날 얘기하며 오붓하게. 그런 시간 가지라고 네 며느리가 자리 피해 준 것 같은데?" 친구 눈엔 제가 말리는 시누이처럼 알밋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만 끌어당기지 말고 양쪽 끝에서 잡아당겨 구겨진 마음을 펴보면 편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긴 저도 오늘 아침 죄없는 남편에게 버럭했습니다. "아니, 애들은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남편은 시니컬하게 "우린 잘 했어?" 저의 집도 '예고된 배신자'의 배신+ing 중입니다. -서울주보에서-